

# 부산·경남지역 노동시장과 정책과제

( 임 정 덕 )

<제 목 차 례>

1. 서론 .....	4
2. 전국 및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	6
가. 인구와 인구구조의 변화 .....	6
나.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 .....	10
다. 취업구조의 변화 .....	14
3. 인구이동에 의한 노동시장 변화 .....	24
4.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 노동수요적 접근 .....	31
가. 산업구조 .....	31
나. 직종구조 .....	41
다. 입직율 · 이직율 .....	43
5. 부산지역 산업구조조정과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 .....	45
가. 연구개요 .....	45
나. 연구내용과 결과 .....	45
다. 부산지역의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노동정책에 대한 함의 .....	48
6. 지역노동정책 .....	49
가. 노동시장조건의 변화와 지역노동정책 .....	49
나. 지역노동정책의 과제 .....	51
다. 산업구조조정과 노동력의 재배치 .....	53
참고문헌 .....	57

〈표차례〉

<표 1> 전국의 인구추이 .....	7
<표 2> 부산의 인구추이 .....	8
<표 3> 경남의 인구추이 .....	9
<표 4> 전국의 경제활동인구 총괄 .....	12
<표 5> 부산과 경남의 경제활동인구 총괄 .....	13
<표 6> 전국 및 부산, 경남의 고용구조 대비 .....	15
<표 7> 부산·경남지역취업자(연령별전국대비) .....	16
<표 8> 전국 및 부산, 경남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구성(전취업자) .....	18
<표 9> 전국 및 부산, 경남 전산업/제조업 종사자 성별 근로자수 추이 .....	20
<표 10> 교육정도별 취업자 .....	21
<표 11> 전국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증가분 분해 .....	21
<표 12> 부산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	22
<표 13> 경남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	23
<표 14> 부산의 유동인구 추이 분석 .....	25
<표 15> 경남의 유동인구추이 .....	29
<표 16> 부산 및 부산권 산업 / 경제의 변천과정 .....	33
<표 17> 부산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	34
<표 18> 부산제조업의 변화할당(Shift Share) 분석 .....	35
<표 19> 부산, 경남 제조업 생산성 지수 .....	37
<표 20> 부산, 경남의 산업별 입지상 계수 (고용) .....	39
<표 21> 제조업 생산액 10억원당 고용 .....	40
<표 22> 전국의 직업별 취업자구성 .....	41
<표 23> 부산의 업종별 취업자수 .....	42
<표 24> 경남의 업종별 취업자추이 .....	42
<표 25> 전국의 연도별 입직율·이직율 추이 .....	43
<표 26> 부산지역 직종별 구인·구직현황 .....	44
<표 27> 신발산업 해고노동자의 직업탐색 및 이동 .....	48
<부표 1> 부산의 연령계층별 근로자의 구성 .....	60
<부표 2> 경남의 연령계층별 근로자의 구성 .....	60
<부표 3> 전국의 연령계층별 근로자의 구성 .....	61
<부표 4> 부산유동인구의 전출입 지역별 추이 .....	62
<부표 5> 경남인구이동의 전출입 지역별 추이 .....	63
<부표 6> 1995년 산업별·연령별 취업자수 <전국편> .....	64

## 1. 서 론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파악된다. 1960년대 중반까지 전형적인 농업국가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던 한국이 급속하게 산업화하면서 30년이 못되는 기간동안 산업국가로 탈바꿈하였는데 그 과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생산이나 소득, 또는 취업자 구성비의 양면에서 파악된다. 생산구조의 변화가 일방적으로 취업구조의 변화에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 산업부문간의 노동력이동이 진행되고 이것이 도시화를 유도하여 산업중심지가 빠르게 도시화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나 산업화가 일정수준에 다다르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취업구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의 조건, 예를 들면 인력의 공급상황, 노동력의 질이나 기술조건 또는 노동력의 구성 등에 따라서 산업의 입지나 창업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노동력의 지역간 또는 국제적 이동이 없다면 산업구조는 취업구조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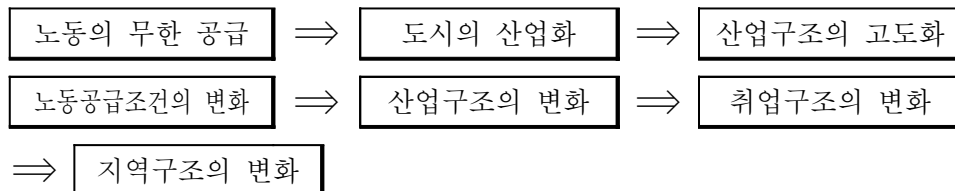
위와 같은 국가·경제 전체적인 상황은 지역경제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된다.

생산구조의 변화 ⇒ 취업구조의 변화 ⇒ 도시화의 진행

이라는 전형적인 모형으로 한국지역경제 구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도시화는 산업화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일정수준의 산업화 이후에는 지역노동시장 조건이 산업구조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부산은 초기에 경공업중심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지역자체나 주변 농촌지역으로 부터의 노동력유입에 의해 그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의 공급조건이 달라지면서 저렴한 임금의 노동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은 경쟁력 상실로 급속하게 위축되었다. 경공업의 경우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때문에 노동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임금 등의 조건에 불문하고 노동력 공급자체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는 호소를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듣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공급조건 때문에 경공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시장으로부터 퇴출하거나 해외직접투자 등의 형태로 정리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조정 과정이 지역생산 구조에 변화를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한국노동시장은 노동공급측면에 더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단

계에 빠르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보다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수요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선진국적 현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서 노동수요와 공급이 다같이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단계별로 도시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상호작용 하는 지역취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취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노동공급조건의 변화는 취업구조변화를 통해 산업구조자체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일방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중점은 부산 및 경남지역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과악이다.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나 취업구조가 최근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부산이나 경남지역도 같은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는가가 관심의 첫 번째 초점이 된다. 지난 70년대이래 한국의 노동시장이 <고령화>, <여성화>, <고학력화>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변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지역별 확인, 변화의 속도 비교 및 지역별 특성과 비교를 여러 면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결국 위와 같은 흐름이 부산과 경남 노동시장에 똑같이 나타나는가, 또는 지역별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내용이 된다. 부산이나 경남의 산업구조나 공업구조가 전국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변화과정을 겪어 왔으므로 지역산업구조의 독특한 특성이 지역노동시장이나 취업구조를 다른 지역이나 전국적인 흐름과 다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 앞의 요인보다 더 강력한 원인으로 추출될 수도 있다. 혹은 양지역의 기업규모나 인구구성 등의 특이성때문에 지역 취업구조가 전국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수도 있다. 또한 부산 및 경남 양지역간의 노동시장의 특성비교도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전국의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특성별로 논의된 다음 부산과 경남의 경우가 이와 대비되어 논의되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가 대기업의 경우와 비교되는 순서를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지역 - 할당분석(Shift Share Analysis)의 틀을 빌려서 설명하면, 노동시장의 구조나 취업구조의 변화가 일반적인 변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효과나 기타효과에 속하는 것인지도 구분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과 설명들은 통계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노동이나 취업의 전국적인 통계적 자료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지역적 통계는 매우 빈약하고 일관성이 없다. 또 사용 가능한 지역별 통계는 시계열상 짧은 기간에 그치거나 광공업에 국한되는 등의 제한조건을 지니고 있다. 보다 어려운 문제는 가능한 통계의 조사대상, 조사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시켜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다.

그러나 단편적인 정보도 많이 모아 비교하면 어떤 추세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연구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자료의 정의나 범위의 상이등에 따르는 혼란은 별도의 연구에서 지적되어야 할만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2. 전국 및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 가. 인구와 인구구조의 변화

#### 1) 전국

인구변화는 노동력 공급의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요인이다.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과거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90년대에는 0.9%내외에서 안정되어 있다. 이는 정부의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가족계획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수준의 향상에 의한 평균수명증가와 영·유아사망율의 감소가 인구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 추세의 둔화에 따라 인구의 구성도 저년층의 감소와 노년층의 증가로 과거의 피라미드형에서 선진국의 원통형으로 그리고 점차 역삼각형으로 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 전국의 인구추이

(단위: 천명)

연도	총인구수	남	여	성장률
1955	21,526	10,767	10,760	-
1960	24,989	12,544	12,445	3.22
1965	28,705	14,453	14,252	2.58
1970	32,241	16,309	15,932	2.21
1975	35,281	17,766	17,515	1.70
1980	38,124	19,236	18,888	1.57
1985	40,806	20,576	20,230	0.99
1990	42,869	21,568	21,301	0.99
1991	43,268	21,775	21,493	0.93
1992	43,663	21,979	21,685	0.91
1993	44,056	22,177	21,879	0.90
1994	44,453	22,376	22,077	0.90
1995	44,851	22,576	22,275	0.90
1996	45,248	22,776	22,471	0.88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보 1996 제 43호

주 : 1) 외국인 포함

2) 1959년까지는 연말 상주인구조사 1960년도부터는 추계인구

## 2) 부산

부산에서도 인구추이는 90년에 들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증가율이 감소추세로 바뀌고, 85년도부터 1%미만으로 바뀐다. 그리고 80년대 말부터는 마이너스를 성장을 계속함으로써 부산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부산시의 노동시장이 그 만큼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써 부산시의 노동력은 인구의 유출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출산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인구(노동력)의 유출이 유입을 능가하기 때문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1995년에 인구가 증가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반전 내지는 안정 성향을 나타내는 현상의 시작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표 2> 부산의 인구추이

(단위: 명,%)

연 도	인 구 수			증 가 율
	계	남	여	
1955	1,049,363	529,112	520,251	-
1960	1,163,671	578,748	584,923	7.0
1965	1,419,808	698,395	721,413	11.4
1970	1,842,259	905,351	936,908	9.9
1975	2,453,137	1,222,153	1,231,020	6.4
1980	3,159,766	1,570,367	1,589,399	4.1
1985	3,516,807	1,738,871	1,777,936	0.6
1990	3,798,113	1,881,926	1,916,187	-1.5
1991	3,892,820	1,934,599	1,946,016	2.5
1992	3,887,278	1,946,204	1,942,734	-0.1
1993	3,868,429	1,934,599	1,933,830	-0.5
1994	3,846,544	1,923,770	1,922,774	-0.6
1995	3,892,972	1,946,702	1,946,270	1.2

자료: 부산통계연보, 각년도, 부산시

주: 1990년까지는 상주인구조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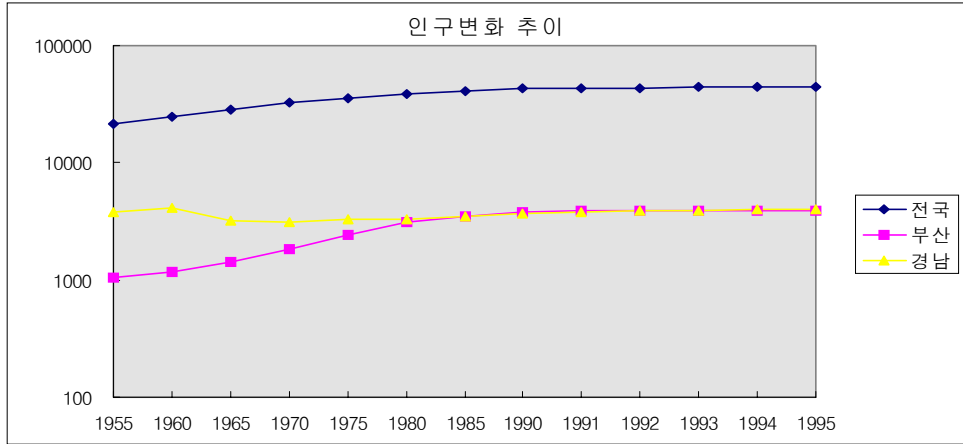
1991년 이후는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결과

### 3) 경남

한편 경남의 인구추이는 부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산업화 이후 계속된 이농현상으로 경남인구는 60년대말 이후 80년말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다. 즉 노동력의 대부분이 농업이나 어업에서 대도시의 제조업부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경남에도 일자리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증거이며 이는 뒤에 나타날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림 1> 인구변화 추이



<그림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국과 경남의 인구변화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에는 초기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점차 안정화 내지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표는 log치로 표시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표 3> 경남의 인구추이

(단위: 명,%)

연도	인구수			증가율
	계	남	여	
1955	3,770,208	1,859,431	1,910,778	-
1960	4,182,042	2,088,679	2,093,363	6.5
1965	3,228,433	1,618,448	1,609,985	0.4
1970	3,119,669	1,557,155	1,562,514	-0.7
1975	3,280,052	1,642,821	1,637,231	-1.1
1980	3,322,132	1,662,540	1,659,592	-1.7
1985	3,519,660	1,765,080	1,751,580	-1.6
1990	3,679,396	1,845,842	1,833,554	-0.8
1991	3,767,196	1,893,865	1,873,331	2.6
1992	3,849,468	1,935,060	1,914,408	2.2
1993	3,906,098	1,963,598	1,942,500	1.5
1994	3,967,705	1,996,028	1,971,677	1.6
1995	3,958,540	1,993,869	1,964,671	-0.2

자료: 경남통계연보, 각년도, 경상남도

주: 1990년까지는 상주인구조조사결과

1991년 이후는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결과

1992년부터 외국인 포함한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

## 나.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

인구의 절대수 못지않게 노동공급에 중요한 요인이 적령기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 30년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본의 경우에 근접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가 성별구성비의 변화로써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여자의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은 80년대에 두드러진 생활환경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와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구미제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며 한국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주목할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비의 빠른 변화이다. 특별히 학령기의 인구인 15 - 19세와 20 - 24세 사이의 인구의 구성비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15 - 19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 구성비가 80년에 8.3%이던 것이 89년에는 3.7%로 감소하여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약 절반정도 감소하였고 1994년에는 2.4%로 감소하였다. 20 - 24세 사이의 인구구성비도 80년의 13.7%에서 89년 10.5%로 감소하였다가 94년에는 10.9%로 약간 증가하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증가율 감소와 아울러 취학률의 높은 증가이며 20 - 24세 사이의 구성비 증가는 80년이후의 졸업정원제실시에 따른 대학진학률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미숙련노동자의 공급부족이 인구구성의 변화와 진학률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이다. 한국의 평균학력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평균학력수준의 증가는 보다 젊은 연령층의 취학율증가에 따른 것이며 그 중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빠른 속도로 평균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1966년에 3.97년이었으나 1985년에는 7.58년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성이 일반고등학교 진학률도 1985년에는 23.5%에서

1996년에는 35.9%로 대폭 상승하였다.

한국전체인구의 학력수준상승이 경제활동참가나 노동시장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는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분명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진학률 증가로 학령기의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시기가 늦추어지는데 따른 공급감소와 여성의 경우 학력이나 훈련의 증가에 따른 취업희망의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추정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부산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또 전국의 참가율 상승속도에 비해 상승속도가 매우 느린편이다. 경남도 전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서 오히려 부산과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다. 더욱이 '95년에는 참가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표 4> 전국의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 천명, %)

구 분	15 세 이 상 인 구					경제활동참 가 율 (6)= (2)/(1)	취 업 륜 (7)= (3)/(2)	실 업 륜 (8)= (4)/(2)
	(1)	경제활동 인 구		비 경 제 활 동 인 구 (5)				
		(2)	취 업 자 (3)		실 업 자 (4)			
1970	17,468	10,062	9,617	445	7,407	57.6	95.6	4.4
1975	20,918	12,193	11,692	501	8,726	58.3	95.9	4.1
1980	24,463	14,431	13,683	748	10,031	59.0	94.8	5.2
1985	27,553	15,592	14,970	622	11,961	56.6	96.0	4.0
1990	30,887	18,539	18,085	454	12,348	60.0	97.6	2.4
1995	33,558	20,797	20,377	419	12,761	62.0	98.0	2.0
1996	34,182	21,188	20,764	425	12,994	62.0	98.0	2.0
1997 2/4분기	34,668	21,868	21,319	549	12,799	63.1	97.0	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호

<표 5> 부산과 경남의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천명, %)

년 도	부 산			경 남		
	경제활동인구수	참가율	실업율	경제활동인구수	참가율	실업률
1980	915.7	52.3	6.7	1,390	63.2	4.5
1985	1,153	46.7	6.3	1,424	57.0	2.5
1990	1,578	58.3	3.4	1,590	61.8	1.6
1991	1,636	59.6	3.3	1,618	61.7	1.7
1992	1,651	59.6	3.3	1,662	62.2	1.5
1993	1,670	59.6	4.4	1,682	61.9	2.1
1994	1,697	59.9	4.2	1,695	61.3	1.9
1995	1,730	60.3	3.5	1,713	60.7	1.1

자료 : 부산통계연보, 각년도, 부산시. 경남의 사회지표, 각년도, 경상남도

부산과 경남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도시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고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복을 보여 80년대 이후 감소 - 증가 - 감소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기의 변동, 인구유동상황, 연령별 구성비 등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촌지역이 안정화되고, 제조업이 대도시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부산과 경남 양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특이한 점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부산지역은 대도시의 특성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 수 있으나 경남은 농촌부분을 상당히 포함하기 때문에 전국평균보다 낮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아마도 경남의 대도시들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남 또한 대도시적인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전체의 전반적인 실업률은 90년대 이후 2%내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부산과 경남의 실업률은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의 경우, 실업률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경

남은 전국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1%대의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사실상 완전고용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농촌지역은 노동인구감소로 실업의 여지가 줄어들고 도시지역은 제조업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의 노동시장 구조는 여러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다. 취업구조의 변화

### 1) 고용구조

<표 6>은 전국, 부산, 경남의 고용구조를 대비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산은 6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히 산업화된 대도시지역이며 경남은 70년대 이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화된 지역이나 9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미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농업·수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분이 산업구조 고도화의 순서에 따라 제조업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비스산업으로 직접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보다 높아서 제조업중심으로 지역이 성장하고 있으며 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80년대 후반 이후 인구가 순전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은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으로 제조업의 구성비가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여 서비스산업 취업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갖춘 경우가 아니어서 인구와 노동력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전국 및 부산, 경남의 고용구조 대비

2) 연령구조

<표 7> 부산·경남지역취업자(연령별전국대비)

	부 산							경 남						
	-19	20-24	25-29	30-39	40-49	50-54	55+	-19	20-24	25-29	30-39	40-49	50-54	55+
1974	+	—	—	+	—			++	—	—	—	—	—	
1980	++	—	—	—	—	—	+	—	—	+	+	—	—	—
1985	++	+	—	—	○	○	○	+	—	+	+	—	—	—
1990	++	—	—	—	+	+	+	—	—	+	++	—	—	—
1995	—	—	—	—	++	+	+	○	—	—	++	+	—	—

범례 : + : 전국 평균 상회  
 ++ : 전국 평균 상당히 상회  
 — : 전국 평균 하회  
 —— : 전국 평균 상당히 하회  
 ○ : 전국 평균과 동일

출처 :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작성

위 표는 부산과 경남지역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전국평균과 대비해본 것이다. 이것은 5인 이상 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해 작성된 취업구조이다. 부산의 경우 70년대이래 19세이하의 구성비가 전국보다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거나 20대 및 30대 취업자의 구성비는 일률적으로 전국보다 낮다. 또 90년대 이후에 40대이상의 고령취업자 구성비가 상당히 높은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의 취업자 비중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낮으나 20대 후반 및 30대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어 전국평균보다 높고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감에 따라 더 강해진다.

이상의 경우를 종합해보면 부산의 취업자 연령구조는 10대와 40대 이상의 상대적 고령자 비중이 높고 경남의 경우는 청년(20대 후반 및 30대)층 비중이 매우 높은 대조적 취업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분석은 5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경우이며 이를 전취



업자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내용이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8> 참조)  
이 경우가 통계자료에 따라 상황이 크게 바뀌는 경제 분석의 오류가능성을 다시  
보여주는 예가 된다.

<표 8> 전국 및 부산, 경남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구성(전취업자)

### 3) 성별구조

성별취업구조는 부산과 경남이 상당히 달라서 부산은 전산업을 통해 여성취업자의 비중이 높으나 그 중에서도 제조업에서의 여성비중이 상당히 높다. 부산의 제조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여성비중이 높으므로 전산업의 비중도 당연히 높게 된다. 앞에서 나온 연령별 구조와 연과시켜 보면 부산의 기혼 여성노동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경남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또 제조업의 성격도 비노동집약적 산업내지 자본집약적 산업이 많으므로 제조업의 여성취업자 비중이 낮고 따라서 이것이 전산업의 여성비중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개별산업별 성별구조는 부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표 9> 전국 및 부산, 경남 전산업/제조업 종사자 성별 근로자수 추이

#### 4) 학력구조

<표 10> 교육정도별 취업자

(단위: 천명)

연도	총수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80	13,706 (100)	7,055 (51.5)	2,757 (20.1)	2,981 (21.7)	913 (6.7)
1985	14,935 (100)	5,644 (37.8)	3,157 (21.1)	4,604 (30.8)	1,529 (10.2)
1990	18,085 (100)	5,264 (29.1)	3,532 (19.5)	6,814 (37.7)	2,475 (13.7)
1993	19,253 (100)	4,569 (23.7)	3,264 (17.0)	8,086 (42.0)	3,334 (17.3)
1995	20,377 (100)	4,369 (21.4)	3,323 (16.3)	8,861 (43.5)	3,824 (18.8)
1996	20,764 (100)	4,246 (20.4)	3,366 (16.2)	9,081 (43.7)	4,071 (1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호

위의 표에서는 전국적으로 고학력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저학력-고령화된 노동력은 대부분이 퇴직하고 과거부터 노동력 시장에 진출해 있던 저학력 노동력이 현재의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취업자수의 증가는 대부분이 고졸과 대졸이상의 취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래 표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

<표 11> 전국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증가분 분해

(단위: 천명)

	총수 증가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80~85년	1229	-1411	400	1623	616
85~90년	3150	-380	375	2210	946
90~95년	2292	-895	-208	2047	1349
95~96년	387	-123	43	220	247

자료: <표 10> 으로부터 만들음.

또 한국(취업)노동력의 고학력화가 위의 <표 11>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80년대에서 96년까지의 취업자 증가를 학력단계별로 분해해보면 초등학교 이하 학력소지자는 노동시장에서 급속하게 퇴출하고 있고 90년 후반기부터는 시장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졸이하도 초등학교 학력과 비슷하게 90년대 후반부터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졸이상의 고학력 노동력이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95~96년 사이에 취업자수가 387천명 증가하였는데 그 중 63.8%에 해당하는 247천명이 대졸이상이었으며 이 숫자는 고졸 220천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노동시장의 고학력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부산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단위: 천명)

연도	총수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91	1,581 (100)	265 (16.8)	378 (23.9)	707 (44.7)	232 (14.7)
1992	1,597 (100)	253 (15.8)	360 (22.5)	720 (45.2)	263 (16.5)
1993	1,596 (100)	267 (16.7)	318 (19.9)	743 (46.6)	269 (16.9)
1994	1,627 (100)	272 (16.7)	308 (18.9)	766 (47.1)	280 (17.2)
1995	1,669 (100)	261 (15.3)	306 (18.3)	787 (47.2)	314 (18.8)

자료: 부산통계연보, 각년도, 부산시

부산의 교육정도별 취업자를 보면 경남과 대조적으로 고학력화가 더욱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산이 처음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산업구조를 볼 때도 경남에서는 높은 1차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에서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표 13> 경남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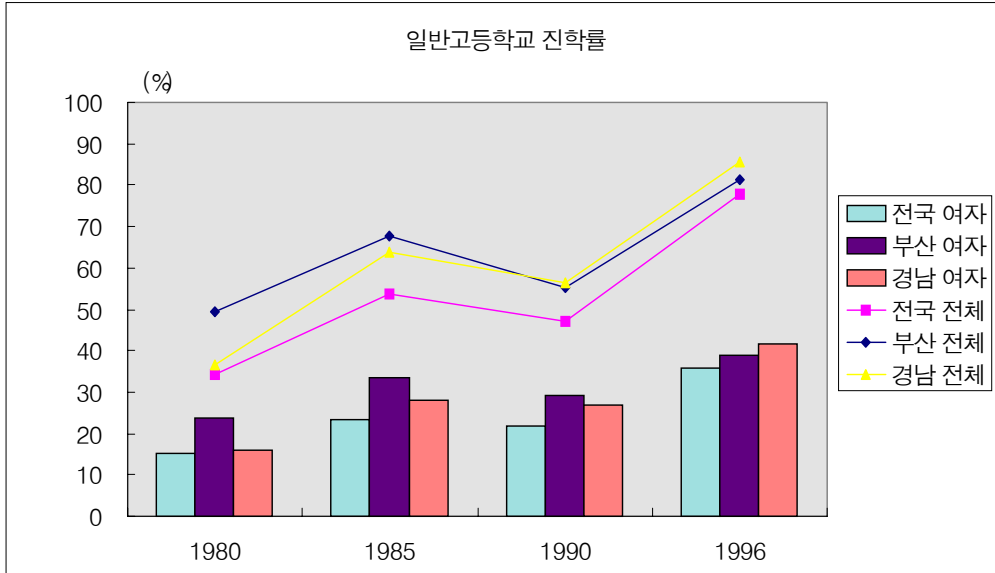
연 도	총 수			초등졸 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2	1,637 (100)	986 (60.2)	651 (39.8)	210 (12.8)	292 (17.8)	177 (10.8)	135 (8.2)	446 (27.2)	178 (10.9)	154 (9.4)	46 (2.8)
1993	1,646 (100)	983 (59.7)	663 (40.3)	196 (11.9)	268 (16.3)	158 (9.6)	120 (7.3)	473 (28.7)	212 (12.9)	156 (9.5)	63 (3.8)
1994	1,663 (100)	993 (59.7)	670 (40.3)	187 (11.2)	249 (15.0)	159 (9.6)	117 (7.0)	480 (28.9)	229 (13.8)	167 (10.0)	75 (4.5)
1995	1,695 (100)	1,027 (60.6)	668 (39.4)	159 (9.4)	236 (13.9)	168 (9.9)	119 (7.0)	500 (29.5)	235 (13.9)	201 (11.9)	79 (4.7)

자료: 경남통계연보, 각년도, 경상남도

위의 표에서 경남의 취업자 역시 고학력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와는 달라, 군부에는 여전히 저학력-고령화된 노동력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의 감소율도 낮은 편이라 이는 자연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졸도 여전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군부에서 흡수되고 고졸이상은 시부에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는 일반고등학교 진학률을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학력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이 표에서 알 수 있다. 특기할 사항은 부산보다 경남의 진학률이 최근에 높아진 점이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에서 여성의 일반고등학교 진학률은 전국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여성노동력의 보다 높은 기여가 예상된다.

<그림 2> 일반고등학교 진학률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교육부

### 3. 인구이동에 의한 노동시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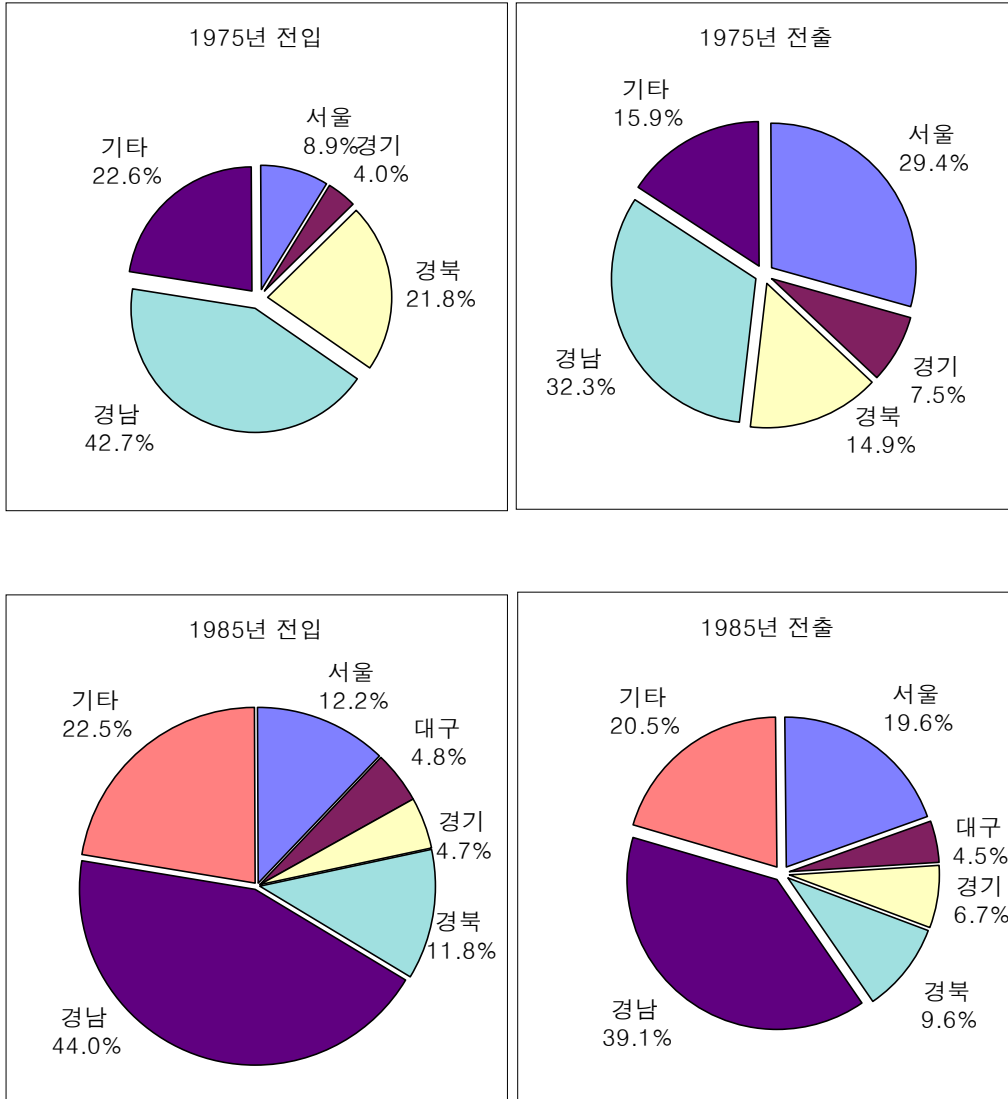
전출입 지역별에 의한 지역 유동인구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의 추이를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도 부산 부근지역으로 인구유입의 유인이 있어 경남과 경북을 비롯한 주위의 도에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전입인구가 줄어들고 전출인구가 늘면서 1995년부터는 모든 지역에 이르러 전출이 초과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의미 외에 부산시가 그만큼 노동력을 유인할 만한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상세한 내역은 부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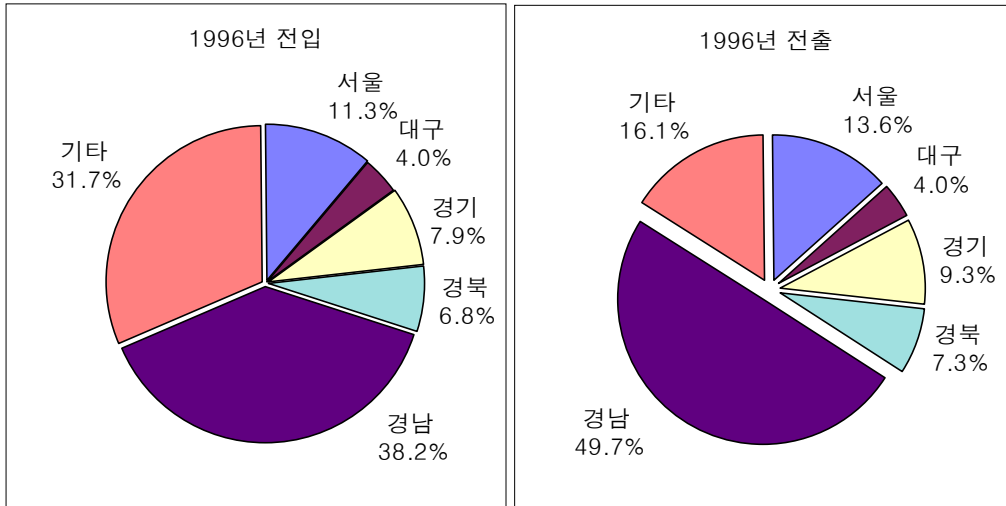
특히 경남과의 관계인 경우 10,000명 이상이었던 인구전입초과가 불과 5년도 안되어 10,000명 이상의 전출초과가 되어 경남지역으로의 급격한 인구이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부산의 산업이 경남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이전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4> 부산의 유동인구 추이 분석

<그림 3> 부산 인구이동 요인 분석





위의 표에서 노동력 이동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추세를 분석할 수 있다.

먼저 **흡인** — **유출** 관계로 지역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부산이 일찍 산업화되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산업활동을 하던 시기인 1970년대에는 부산은 서울 및 경기의 수도권 지역으로 노동력을 방출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으로부터는 노동력을 흡인하고 있고 그 흡인력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가까운 지역에서 더 많이 흡수하여 경남 - 경북 - 전남 의 순으로 순전입이 이루어졌다.

부산의 경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는 기본적인 유형은 변화하지 않으나 그 흡인 정도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인구이동이 점차 둔화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부산의 권역 중심지적 역할이 감소되는 증거가 된다. 특히 경북과 전남지역으로 부터의 순전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의 자체 경제력 강화뿐만 아니라 부산의 흡인력 감소와 다른 지역의 흡인력 증가가 상승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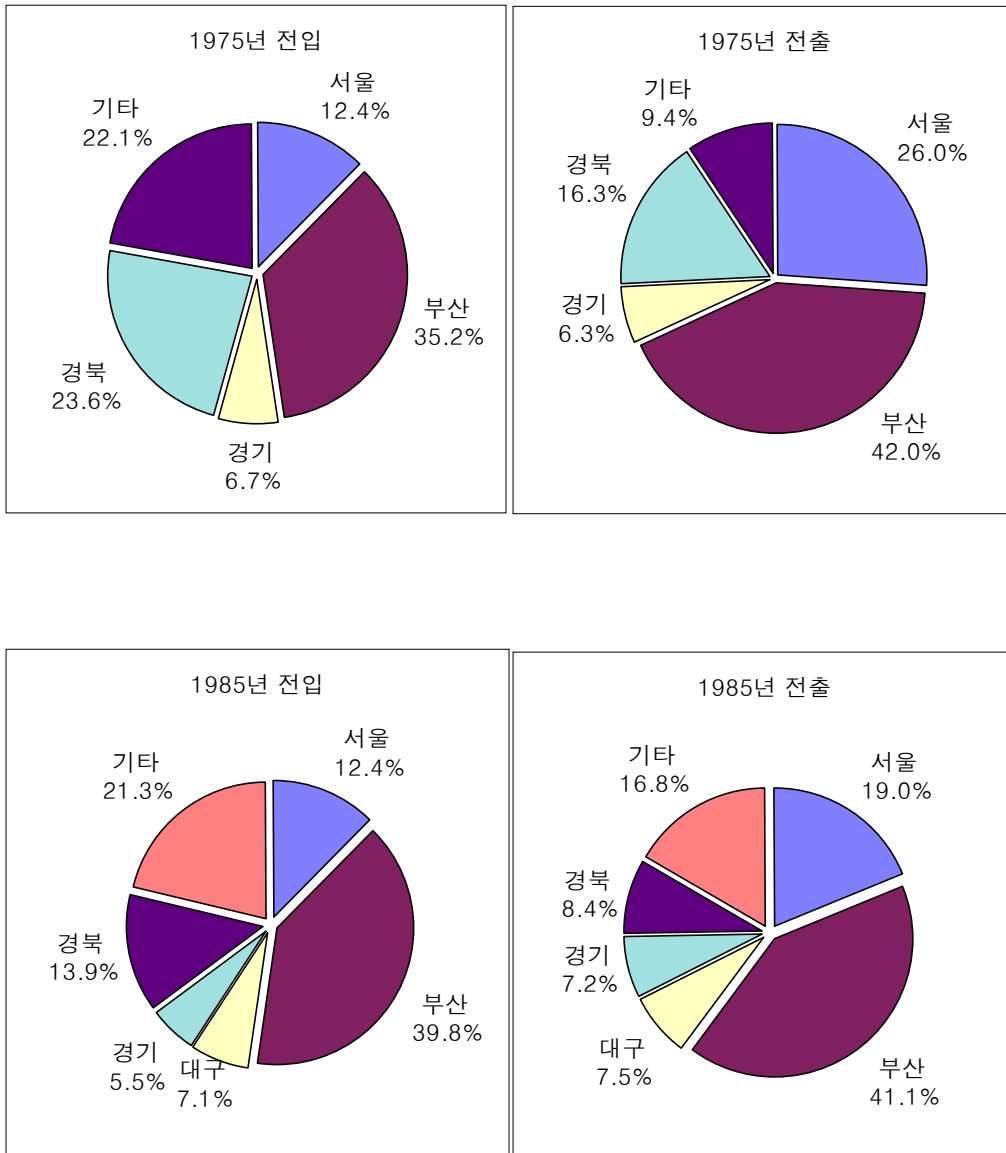
산업화시대에 지속되었던 부산을 중심으로 본 노동력 이동유형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먼저 부산으로부터 노동력이 순전출되는 지역이 기존의 서울, 경기 뿐만 아니라 모든 직할시급의 대도시에 다 같이 적용되어 전국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어 있고 1993년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물론 이 통계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출입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센서스에 의한 통계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인구이동의 요인이 직장이나 취업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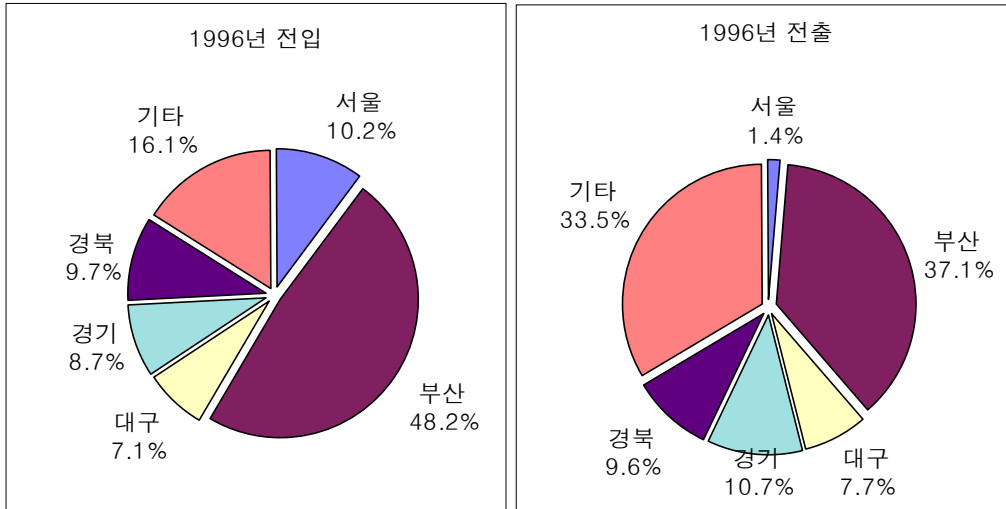
해당되지 않고 생활의 질이나 기타 비경제적인 요인까지 포함 할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흡인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음은 확실한 사실이다. 경남의 경우에는 부산권과의 연관성 증가로 인해 교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의 경제적 위상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경남의 경우에는 상당히 대조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1970년대에는 경남은 주변 지역 중에서 대도시 지역이 아닌 곳으로부터는 노동력을 흡인하고 있으나 경북 지역에는 유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울·경기 및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소간의 노동력을 흡인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흡인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전남북 및 충남북 등의 소규모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작은 정도로 순유출이 시작되고 있어서 추세의 반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정밀화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 성별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나 자료문제로 여기서는 제외된다.

<표 15> 경남의 유동인구추이

<그림 4> 경남인구이동 요인 분석





#### 4.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 노동수요적 접근

##### 가. 산업구조

본 장에서는 노동수요적인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역노동시장은 지역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공급은 노동수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지역생산성은 지역 노동수요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장은 자료관계상 주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남지역도 분석한다.

##### 1) 부산의 산업 경제적 위상 변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 이후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연관된 부산 및 부산권의 산업 경제적 역할과 위상의 변화가 <표 16>에 요약·정리되어 있다. 1960년대의 초기산업화 과정에서는 수출주도형 경공업의 육성에 산업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부산은 입지적 이점과 주변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섬유, 신발, 합판,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의 빠른 성장과 수출증대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노동 집약적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에는 부산의 산업화가 바로 한국의 산업화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부산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최선봉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유지하였다. 1970년대 초반기의 공업화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인근의 동남임해 공업벨트의 개발과 더불어 동남권의 중심으로서의 부산의 위상은 높아져만 갔다. 그 예로 1970년초의 지역 GRP추계에서 부산의 1인당 GRP는 전국 제1위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산업경쟁력의 변화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부산은 산업구조조정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고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신속히 중화학공업화되는 주변지역과는 산업적 및 사회경제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부산의 위상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제조업구조 고도화의 추세에 편승하지 못함으로써 부산의 제조업 기반은 차츰 상실되어갔다. 비록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의 공백을 빠르게 메워 왔지만 취약한 제조업 기반 등의 이유로 인하여 서비스산업도 영세성과 저생산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울산·창원·마산 등 중화학공업으로 기지화된 인근 공업지역의 급속한 성장은 낙후된 제조업구조를 가진 부산과의 산업적 연계를 약화시켰으며, 나아가 부산은 이 지역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자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지 못함으로써 권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은 빠르게 약화되었다.



<표 16> 부산 및 부산권 산업 / 경제의 변천과정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세계경제	세계무역의 증가 미국주도경제	석유위기 미국의 영향력 감소	정보화시대의 본격진입 경제의 세계화	탈냉전 경제시대 세계화 및 지역화
한국경제	경제개발계획의 시작	성장의 가속화	성장지속과 체질개선	경쟁우위 모색
산업구조	수출주도형 경공업중심	중화학 공업구조로 변화	산업구조 고도화 진전	산업구조 및 제조업 고도화
부산권경제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공업화	부산과 주변지역의 산업적 분리	주변공장지역의 성장	주변지역과의 연계미흡
부산권산업	수출주도형 경공업중심	부산 인근 지역 의 중화학공업화	마산·창원·울산 지역의 성장	주변공업지역의 독자성장화
부산경제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공업화	제조업 중심 의 경제구조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부산산업	경공업제품 주도	수 출 주 도 형 경공업중심	수출주종산업의 상대적 약화	주종산업의 퇴조와 대체산업의부재
상대적 위상	한국산업화 =부산산업화	부산의 위상 약화 시작	전국비중의 지속적 약화	국내외 경쟁력 저하 산업구조조정실패

<표 17> 부산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구분 연도	고 용						부 가 가 치					
	전 국			부 산			전 국			부 산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965	58.0	10.3	31.0	5.1	7.6	87.3	42.9	13.1	44.0	4.7	40.5	54.8
1970	50.4	14.3	35.2	3.7	37.3	59.0	28.7	16.3	54.9	3.5	41.6	54.9
1975	45.9	19.1	35.0	3.5	27.5	69.0	24.2	23.5	52.3	2.4	45.6	52.0
1980	34.0	22.6	43.4	4.8	40.4	54.8	15.1	22.0	52.9	3.0	35.5	61.5
1985	24.9	24.5	50.6	4.0	38.4	57.6	12.8	31.3	55.9	2.8	31.5	65.6
1990	18.3	27.3	54.4	3.0	39.0	59.0	10.2	28.9	62.1	3.1	31.7	65.2
1993	14.7	24.4	60.9	2.1	30.8	67.1	7.1	27.5	65.4	3.0	24.5	72.5
1994	13.6	23.9	62.5	2.2	28.5	69.2	-	-	-	-	-	-

자료: 경제기획원, 부산시

1990대 이후에는 주변공업지역의 독자성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과의 연계는 더욱 약해졌으며 동남권의 중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역할은 축소되었다. 또한 공업용지 부족 및 지가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역외이전, 경쟁력 약화로 인한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의 잇달은 도산, 대체산업육성의 실패,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 지역적 차원의 대응의 부재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산의 경제력 및 부산의 위상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 2) 제조업의 변화

통계가 비교적 초기부터 갖추어진 산업은 제조업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서 부산경제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부산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므로 제조업에 의한 분석이 부산산업구조 변화를 대변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부산이 적기에 산업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제조업구조가 낙후되어 있다. 그 변화과정을 5년 주기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은 변화할당분석모형 중 Esterban-Marquillas의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기간 중 지역제조업 업종별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표를 읽는 방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1991년 이후부터는 산업분류체계가 달라 졌는데 이 표는 비교를 위해 구분류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표 18> 부산제조업의 변화할당(Shift Share) 분석

	부가가치						고용					
	63-	68-	73-	78-	83-	88-	63-	68-	73-	78-	83-	88-
	68	73	78	83	88	93	68	73	78	83	88	93
31음식료품, 담배	2	2	2	2	2	3	2	2	6	2	2	2
32섬유, 의복, 가죽	3	1	3	1	1	1	2	2	3	1	1	1
33나무, 나무제품	4	1	1	1	1	1	3	1	1	1	2	1
34종이, 인쇄, 출판	2	2	2	2	2	2	2	2	3	2	2	2
35화학, 고무프라스틱	1	2	1	1	4	1	4	1	4	4	1	1
36비금속광물	2	2	2	2	2	2	2	2	2	2	2	2
37제1차금속	4	1	1	1	1	4	4	1	1	1	1	1
38조립금속	1	1	1	2	2	3	4	1	2	2	2	2
39기타제조업	1	1	3	3	2	2	1	2	3	3	2	2

자료 : 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할당효과의 유형<sup>1)</sup>

번호	유형	할당 효과(A <sub>ij</sub> )	전문화(E <sub>ij</sub> -E <sup>^</sup> <sub>ij</sub> )	경쟁우위(r <sub>ij</sub> -r <sub>in</sub> )
1	전문화, 경쟁열위	-	+	-
2	비전문화, 경쟁열위	+	-	-
3	비전문화, 경쟁우위	-	-	+
4	전문화, 경쟁우위	+	+	+

부산이 제조업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산업화의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신발산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는 점이다.<sup>2)</sup> 그것도 고용상의 경쟁력이지만 부가가치 면으로는 초기부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에는 부산이 전문화되거나 경쟁우위에 있는 업종이 신발이외에도 다수 있었고 나무제품과 같이 부가가치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문도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70년에 이후에는 전 산업이 전국

1) 본 연구에서 쓰인 방법은 Esterban-Marquillas 모형이며 할당효과는 다음의 전문화 및 경쟁우위부문으로 나뉘어 진다.

$$A_{ij} = (E_{ij} - E_{ij}^{\wedge})(r_{ij} - r_{in})$$

A<sub>ij</sub> : 할당효과

E<sub>ij</sub> : 기준 년도 J지역 i산업고용

r<sub>ij</sub> : 일정기간동안 j지역 i산업고용변화율     r<sub>in</sub> : 일정기간동안 전국 i산업고용변화율

E<sup>^</sup><sub>ij</sub> : homothetic employment로 j지역 i산업이 지역에서 고용구조가 국가에서의 고용구조와 동일했을 때의 고용을 말한다. 식은 E<sup>^</sup><sub>ij</sub>=E<sub>j</sub>\*(E<sub>in</sub>/E<sub>n</sub>)=E<sub>in</sub>\*(E<sub>j</sub>/E<sub>n</sub>)가 된다.

2) 신발산업중 주종을 이루는 고무운동화는 표에서 화학고무 프라스틱업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중분류번호35에 포함되어 있다.

산업에 비해 전문화되지도 못하고 경쟁력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이 중심이 된 부산경제가 부진한 이유가 되었다.

광공업통계에 의한 산업중분류별 제조업생산성(부가가치구성비율/취업자구성비율)을 지수화한 것이 <표 19>이다. 표에서 나타난 대로 부산의 2대 주종산업의 부가가치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구성비율 생산성이 낮은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경쟁력은 부가가치율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 생산성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해당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지표가 된다. 부산의 경우 1993년에 5인 이상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신발, 섬유산업의 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 다른 산업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화학, 섬유, 고무, 플라스틱산업에서부터 신발제조가 분리되면 산업의 본래 모습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지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남은 화학·석유 산업과 제1차 금속산업에 확실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성측정의 일반적 방법으로 요소생산성, 특히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통계자료의 어려움 때문에 개별산업이나 업종별로 측정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 변화의 측정은 가능하므로 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최근의 한 연구(이영준, 1992)에 의하면 부산의 경우 1970년에서 1989년의 20년간 모든 업종에서 자본투입의 증가에 의해 부가가치의 성장이 주도되었고 총요소생산성으로 측정되는 기술우위의 생산은 없었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는 지난 1970년대부터 부산제조업이 전국의 변화와는 달리 자본투자의 양적 증가에만 의존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생산성은 자본의 증가에 의해서 주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9> 부산, 경남 제조업 생산성 지수

		31. 음식 료품, 담배	32. 섬유, 의복, 가죽	33. 나무, 나무 제품	34. 종이, 인쇄, 출판	35.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프라 스틱	36. 비금속 광물	37. 제1차 금속	38. 조립 금속, 기계 장비 제조	39. 기타 제조업
전 국	1973	1.48	0.64	1.03	0.89	1.66	1.14	2.36	0.82	0.44
	1978	2.14	0.61	0.74	0.98	1.48	1.11	1.68	1.68	0.48
	1983	1.87	0.54	0.61	1.10	1.46	1.08	1.89	1.89	0.52
	1988	1.58	0.62	0.58	1.05	1.29	1.12	1.91	1.91	0.60
	1991	1.24	0.54	0.71	0.71	1.21	1.24	1.87	1.87	0.63
	1993	1.42	0.59	0.67	0.96	1.34	1.17	1.73	0.96	0.63
부 산	1973	1.11	0.66	1.15	1.00	0.99	1.53	2.68	1.05	0.45
	1978	1.87	0.79	1.06	1.14	0.97	1.37	1.82	0.96	0.66
	1983	2.01	0.73	0.93	1.18	0.80	1.41	2.48	1.24	0.79
	1988	1.40	0.80	0.92	1.45	0.85	1.85	2.05	1.20	0.90
	1991	1.72	0.63	1.41	1.23	0.73	2.04	2.33	1.27	0.86
	1993	1.33	0.68	0.89	1.40	0.77	1.58	2.07	1.20	0.66
	1994	1.21	0.68	0.77	1.23	1.28	1.90	2.19	1.07	1.02
1995	1.25	0.65	0.84	1.14	1.27	1.71	2.00	1.02	1.09	
경 남	1973	1.04	0.52	0.21	0.26	3.90	1.07	0.16	0.73	0.17
	1978	1.27	0.49	0.44	0.47	3.57	0.78	0.95	0.88	0.30
	1983	0.86	0.60	0.57	1.42	2.85	0.72	1.25	0.83	0.42
	1988	0.80	0.69	0.15	1.11	2.17	0.81	1.26	0.88	0.33
	1991	0.95	0.36	0.40	0.77	2.04	0.80	1.25	0.86	0.51
	1993	0.74	0.67	0.42	1.00	1.23	0.87	1.08	1.00	0.76
	1994	0.71	0.51	0.55	0.88	1.93	0.76	1.12	1.07	1.25
1995	0.71	0.43	0.42	0.89	2.08	0.72	1.20	0.91	1.52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산업생산성지수=부가가치의 구성비/고용의 구성비

제조업자체가 기간동안 부진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부산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업구조 고도화를 적기에 이루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변화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부산에서는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된 측면 때문이다. 앞의 <표 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이 산업화되는 초기에 부산은 제조업중심으로 산업화되고 전국경제

가 점차 제조업중심으로 산업화되는 과정 중에 이미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선발의 불이익에 해당되는데 기술변화가 급격하고 산업이 빠른 속도로 구조 조정되는 시기에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초기에 산업화된 지역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된 것이다. 이런 논리를 이용하면 앞으로는 부산이 기회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순서가 된다는 의미도 도출할 수 있다.

### (3) 전 산업의 변화

지역의 전 산업별 고용이나 부가가치에 대한 통계자료는 드물고 또 총사업체 조사보고서는 1980년대 이후라야 매 5년별로만 가능하다. <표 20>에서는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대한 분석이 총사업체조사보고서에 의해 1981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동안 입지상계수로 나타나 있다. 조사범위가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와 다르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제조업의 경우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0> 부산, 경남의 산업별 입지상 계수 (고용)

산 업	년 도	부 산			경 남
		1981	1986	1991	1991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4.75	2.54	1.54	1.30
11. 농업 및 수렵업		0.38	0.06	0.09	1.17
13. 어업		7.05	6.37	3.77	0.53
3 제조업		1.32	1.30	1.11	1.31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0.80	0.67	0.70	1.21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1.75	2.01	1.93	0.63
33.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39	1.03	0.90	0.71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0.54	0.59	0.56	0.53
35. 화학물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16	2.21	1.88	1.22
36. 비금속광물		0.49	0.47	0.29	1.29
37. 제1차금속산업		1.34	1.34	1.10	1.75
38.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0.90	0.78	0.65	2.00
39. 기타제조업		0.83	0.89	0.97	0.41
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48	0.42	0.43	1.87
5. 건설업		0.34	0.47	0.52	0.68
6.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0.92	0.91	1.00	0.87
61. 도매업		1.02	1.02	1.09	0.51
62. 소매업		0.86	0.85	0.98	0.95
63. 음식 및 숙박업		0.97	0.94	0.99	0.99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26	1.18	1.47	0.62
72. 통신업		0.50	0.81	0.78	0.93
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70	0.72	0.85	0.64
84. 사업서비스업		0.86	1.02	0.81	0.89

먼저 제조업 전체는 입지상계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81년의 1.32에서 91년에는 1.11로 변하였다. 제조업 내부적으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입지상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신발이 포함된 화학고무, 제1차금속, 목재 및 나무, 업종들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경우에는 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제조업구조 고도화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종업원 5인 이하를 포함하는 전 사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의 비중이 더욱 높는데 이는 부산제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제3차 산업의 경우에는 운수 및 창고업의 계수가 81년의 1.26에서 91년에 1.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도매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 업종이 1이하의 계수를 나타내어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도시의 역할과 기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연도인 1991년의 통신업 입지상이 0.78이며 금융업이 0.71,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0.91이어서 최근까지도 대도시에 걸맞는 생산자서비스기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은 부산이 아직까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 구조자체가 고도화되지 못함으로 이중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점이다.

통계가 1981년부터 작성되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전 산업 취업구조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기간은 부산의 제조업 비중이 80년대 보다 증가하고 있던 시기이므로 이 표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 추정할 수 있고 서비스산업의 입지상계수는 80년대 보다 전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에는 부산과 상당히 대조적인 고용 입지상계수를 가지고 있는데 경남은 농업, 부산은 어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경우 양측이 다같이 1보다 큰 계수를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 구조에서 부산은 노동집약적, 경남은 노동절약적 특성을 가지고 대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표 21> 제조업 생산액 10억원당 고용 (단위 : 명)

년 도 \ 지 역	부 산	경 남
1993	18.4	7.9
1994	15.9	6.8
1995	13.3	5.6

참고로 <표 21>을 보면 제조업 생산액 10억원당 고용에서 부산이 경남의 2배 이상으로 고용창출에 있어서 산업구조의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나. 직종구조

산업뿐만 아니라 직종별 취업면에서도 노동력 수요 변화의 추이를 볼 수 있다. 먼저 전국의 경우를 보면 산업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직 종사자의 감소가 두드러 진다. 여기에서 유출된 노동력은 기능·기계직의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의 증가로 연결이 되고 유추할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신규 취업자가 대부분이 이 업종으로 진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 종사자가 1970년대에 비해 3배 이상의 증가가 있음은 교육의 고급화, 대졸이상의 학력소유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입증한다. 부산의 경우 1990년 이후 통계자료의 기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와 이전의 직접적인 변화 설명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문인력의 증가의 경우는 전국과 비슷하다. 한가지 특징적인 상황은 최근 단순 노무직의 증가인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제조업 구조의 변화에 기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부산의 제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특히 신발업의 불황으로 여기에서 해고된 노동력의 이전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표 22> 전국의 직업별 취업자구성

(단위 : 천명, %)

구 분	총 수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 종 사 자	사 무 종 사 자	판매·서비스 종사자	농림수산직 종 사 자	기능.기계조 작.단순노무자
1970	100.0	4.8	6.0	18.8	50.2	20.2
1975	100.0	3.6	6.4	20.1	45.8	24.1
1980	100.0	5.3	9.3	22.4	34.0	29.0
1985	100.0	7.3	11.5	26.3	24.6	30.3
1990	100.0	8.7	13.0	25.6	18.1	34.6
1993	100.0	10.3	15.0	28.2	14.6	31.9
1994	100.0	15.4	12.3	21.6	13.5	37.2
1995	100.0	16.4	12.3	21.9	12.3	37.1
1996	100.0	17.3	12.3	22.4	11.4	36.6
1997.	100.0	17.5	12.1	22.6	11.8	36.0
2/4분기	(21,319)	(3,730)	(2,583)	(4,826)	(2,507)	(7,673)

주 : ( )안은 취업자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호

<표 23> 부산의 업종별 취업자수

(단위: %)

구 분	합 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종사자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농림·수산 업 종사자	생산·운수장비 운전자·단순노무자
1984	100	20.4	29.3	4.0	46.2
1986	100	20.3	28.2	4.1	47.3
1988	100	21.8	26.7	3.4	48.1
1990	100	23.0	28.9	1.6	46.5

구분	합계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 자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기능원·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1993	100	2.9	10.8	14.0	24.1	1.6	35.2	11.5
1995	100	2.7	12.3	13.1	25.2	1.7	32.5	21.5

자료: 부산통계연보, 부산시, 각년도

경남의 경우도 전국의 추세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여 준다. 그러나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의 감소가 최근 1990년 이후 전국과 비교해 더욱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이는 노동력의 순전입증가와 더불어 경남의 구조변화가 최근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경남의 업종별 취업자추이

(단위: %)

구 분	합 계	전문기술·행정·관리 직·사무관련직 종사자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농림·수산 업 종사자	생산·운수장비 운전자·단순노무자
1991	100	18.9	23.3	21.8	36.0
1992	100	18.9	23.3	21.8	36.0

자료: 경남의 사회지표, 각년도, 경상남도

구분	합계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 자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기능원·기 계조직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1993	100	2.6	8.7	10.0	19.0	18.8	30.4	10.3
1994	100	2.7	9.0	10.3	20.6	17.1	29.2	11.0
1995	100	2.7	10.4	11.3	20.4	14.7	29.9	10.6

자료: 경남통계연보, 각년도, 경상남도

#### 다. 입직율·이직율

노동시장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입직률과 이직율의 추이다. 물론 이것은 노동수요 보다는 공급측면에 가까우므로 공급에서 다룰 수 있으나 편의상 이곳에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전국의 경우 입직률과 이직률 다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노동시장이 점차로 tight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입직률의 감소는 그 만큼 새로운 노동시장의 제공이 없다는 증거이며, 이직률의 감소는 재취업의 기회가 그 만큼 어려워 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예로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새 취업자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제공, 그리고 창업등 기존 취업자의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

<표 25> 전국의 연도별 입직율·이직율 추이

(단위: %)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입 직 율	3.7	3.8	3.01	3.09	3.01	2.84
이 직 율	3.9	3.6	3.23	3.25	3.14	2.86

자료: 노동통계연보, 1996, 노동부

지역 통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부산지역의 노동시장 입·이직 현황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보면 부산지역에는 구인자 수보다 구직자 수가 많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성 면에서는 부산지역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구인·구직 구성을 보면 생산직과 기타부문에서는 구인자 수가 구직자 수보다 많다. 그러나 전문기술직과 사무관리직 분야에서는 구직자 수가 구인자 수가 많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취업의 기회가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인 생산직 취업을 꺼리고 있고, 생산직 구인자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 고등교육자들을 꺼리고 있어 단순한 구인자 수가 구직자 수보다 많다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구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는 mismatch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

<표 26> 부산지역 직종별 구인·구직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생산기능직	기타	계
1996	구인(A)	3,283	12,593	7,869	3,886	27,631
	구직(B)	3,558	11,237	2,322	1,474	18,590
	구인배수(A/B)	0.92	1.12	3.39	2.64	1.49
1997. 1~11	구인(A)	3,084	12,274	5,431	4,854	25,643
	구직(B)	3,476	12,264	2,283	2,093	20,116
	구인배수(A/B)	0.89	1.00	2.38	2.31	1.27

자료: 부산상공회의소부설 산업인력정보센터

## 5. 부산지역 산업구조조정과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sup>3)</sup>

### 가. 연구개요

임정덕·김완표(1996)의 선행연구는 지역산업구조의 조정에 따른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으로는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 가운데 1992년 9월에 조업을 중단한 (주)삼화와 1994년 1월에 부산외곽지역인 신평으로 이전한 (주)대양에서 실직된 생산직 근로자들 가운데 총 301명(삼화 199명, 대양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근로자의 대부분은 기혼 여성근로자이며 장기 근무한 고령의 여성노동력으로서 공장폐쇄로 인해 동시에 대량해고됨으로써 이직에 대한 대비를 못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내용은 크게 네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직근로자들의 폐쇄업체 근무시 근무조건 평가와 실직 당시의 여건 등을 분석함으로써 직업탐색이나 이동을 통하여 정착하게된 업체 및 폐쇄 및 이동업체의 근로조건을 비교하였다. 둘째, 실직근로자들의 직업탐색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장 탐색시 우선 고려사항, 직장 탐색기간, 탐색직장수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근로자의 이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동력의 특성에 따라 이동 직장 및 지역을 조사하였다. 넷째, 다시 채용된 직장의 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새직장의 근로여건이나 임금수준, 작업장의 위치, 이전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였다.

### 나. 연구내용과 결과

#### 1)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과정

첫째, 구직기간은 1개월 이내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개월 이내가 26.5%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근로자의 속성별로는 개인의 숙련도나 학력, 연

---

3) 이 절의 내용 중 (1)과 (2)는 임정덕·김완표(1996)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임.

령에 따라 노동력의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생계비에 대한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구직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직시도 회사 수에서는 1개사의 비중이 전체의 74.4%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시도 업체 수는 학력이나 경력이 높거나 연령이 젊을수록 많아진다. 또한 구직조건을 고려하여 직장을 탐색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동력을 수요만 해주는 업체이면 우선 신속히 구직하고 난 이후 다시 직업을 탐색하는 실직자도 많아 구직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이직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탐색과정에서 고려사항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1위를 차지하였다. 노동력 특성별로는 취업만 되면 근로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중도 높았다. 이러한 노동력은 자신의 조건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 탐색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또한 가족구성별로는 배우자의 직장이 있거나 자가소유인 노동자는 생활상태가 비교적 안정되고 가계보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심이 많은 반면 자신의 노동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직장안정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업탐색을 계속하고있는 실직자 가운데는 비자발적 실업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노동력 특성별로는 고령의 저숙련 노동력일수록 자발적 실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희망업종에 있어서는 고령일수록 조건을 부여하지 않거나 동종업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발산업이 비록 사양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이들에게는 수요공급 양측면에서 다른 업종을 구할 여건이나 능력이 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 2) 재취업 및 직업이동실태

첫째, 조사일 현재(1994년 8월 10일에서 9월 10일) 해고근로자 가운데 전체의 66.1%인 199명이 취업을 했고 나머지 33.9%인 102명은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력이 높을수록 재취업 비중이 높지만 신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령의 저경력자가 많아 재취업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계보조적 근로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생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직업탐색기간을 장기화할 확률이 높고, 그 결과 재취업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구직방법을 보면 친구나 친지를 통한 구직이 66.8%로 가장 많고, 공개채용을 통하여 구직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최초 실직 후 재취업한 업체 수를 보면 61.7%는 한 번만에 직장을 정했지만 2번이 27.2%, 3번 이상도 11.1%를 차지하고 있어 직장이 폐쇄된지 1년여 동안에 업체이동이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력 속성별로는 저연령,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경력이 높을수록 이동업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취업한 업체의 업종, 위치, 규모 등을 고찰하면 부산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동종업종에 취업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속성별로는 고령, 저학력, 저경력일수록 가정부업과 파트타임 등 불완전한 형태나 소규모업체에 취업한 비중이 높다. 결국 고령의 저숙련 노동의 특성 때문에 직업탐색의 결과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전 직장에 비해 점차 근로조건이 취약한 업체에 취업하거나 실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직을 위한 직업탐색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37.7%로 이직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 53.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노동력의 특성별로는 저연령, 고학력, 고경력 등 노동력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직업탐색을 계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노동력일수록 직업탐색을 계속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신발산업 해고노동자의 직업탐색 및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직의 원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폐쇄로 인한 대량해고</li> <li>- 규모축소 및 업체이전</li> <li>⇒ 구직정보나 이직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함</li> <li>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탐색과정의 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에 소요된 기간이 비교적 짧음</li> <li>- 다양한 재취업의 기회가 마련되지 못함</li> <li>- 재취업시 임금과 근로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li> <li>- 비자발적 실업자의 비중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취업 및 직업이동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취업율이 낮음</li> <li>- 구직정보는 주로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li> <li>- 업체간 이동이 빈번</li> <li>- 지역내 소규모 동종업종에 대한 재취업율이 높음</li> <li>- 이직의 어려움으로 직업탐색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적음</li> </ul>

다. 부산지역의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노동정책에 대한 함의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부산지역의 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및 그에 대한 지역노동정책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직업탐색과정과 직업이동 상에서 나타난 대체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직업탐색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둘째, 지역간, 업종간 혹은 산업부문간 이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신발산업에서 배출된 잉여노동력들의 재취업율은 비교적 낮았으며, 또한 재취업자의 경우에는 지역내 소규모 동종업종에 대한 재취업율이 높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사양화되던 신발산업에서 배출되던 대량의 실직노동자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함에 있어서 자신이 보유한 조건을 거의 제시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배출된 노동력이 저숙련, 저학력, 고령 등의 이유로 비교적 가치가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이직을 위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직업탐색과정에서도 다양한 재취업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에 관한 정보를 주로 친구나 친지의 알선에 의존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업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지역내에 소재한 소규모의 동종업종에 재취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재취업을 희망하는 해직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시장은 주로 지역내 동종업종에 대하여 형성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력의 지역간, 업종간, 혹은 산업부문간 이동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업탐색이나 직업이동에 있어서 자신이 보유한 능력이나 경력을 낮출 수밖에 없었으며 지역산업 전체적으로는 생산요소로서의 노동력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상의 경험에서 우리는 직장폐쇄나 규모축소에 따라 발생하게 될 대량의 실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 측의 배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조정과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노동정책적 대응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지역산업구조의 조정에 관한 전망이나 지역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산업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게 될 실직 노동자의 공급량 예측을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구직에 관한 정보의 제공, 직업재교육과 전직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의 이동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며 효율적인 사용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 6. 지역노동정책

### 가. 노동시장조건의 변화와 지역노동정책

지역노동시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경남의 지역노동

시장 구조가 전국과 비교할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먼저 부산·경남 지역도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부산과 경남이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부산은 경남 또는 전국평균보다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그 여성취업자 중에서 기혼-고령 여성의 비중이 높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경남은 전국평균에 비해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또 취업자 연령도 청년층이나 초기 중년층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아서 지역 산업구조 특히 경남 제조업구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교육수준은 전국적인 현상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경남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나 취업자의 상대적 학력이 크게 신장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공급요인에 관한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부산의 인구 감소내지 정체현상이다. 부산은 약 10년 주기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인구의 전출입 수준과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즉 부산은 1970년대까지는 수도권에 순전출을 나타내는 이후에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순전출 현상을 나타내다가 90년대에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순전출을 나타내었다.

경남은 이와 반대로 1980년대까지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순전출을 나타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도 전입초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인접지역에 전입초과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노동시장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현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일방적으로 이동되는 인구 변동 상황이 적어도 부산-경남의 경우에는 바뀌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공급여건이 바뀌는 것과 산업구조 또는 취업구조의 변화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수요조건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부산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으나 이를 대신할 대표적인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역 노동공급의 위축을 초래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 중심산업인 제조업이 더욱 노동절약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종래와는 다른 방향으로 노동수요 조건

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림어업 부문에 상당한 비중이 있으므로 각 산업간의 인력 mismatch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 나. 지역노동정책의 과제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시켜주는 메카니즘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와 노동력의 행동원리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하기보다는 지역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 및 공급자, 그리고 노동력 양성주체간의 네트워킹을 형성함으로써 상호 연계시켜주는 조정자(coordinator)로서 산업간, 업종간, 직종간 노동수급 상의 불균형을 신속히 해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방정부는 지역산업구조의 장기적 조정 방향을 기준으로 각 산업부문에 있어서 노동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수립해야 한다. 부산지역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볼 때 예상되는 정책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했던 해직노동자의 직업탐색 및 이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산업구조조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부산지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정이나 합리화, 혹은 시장퇴출의 대상이 산업은 대부분은 사양기에 접어든 제조업일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잉여노동력은 대부분 단순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력일 것이다. 이러한 잉여노동력들 가운데 비교적 고학력이고 숙련도가 높거나 경험이 많은 노동력은 자발적인 직업탐색을 통한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비자발적인 실업상태로 남거나 근로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업종에 단순 재취업되기 쉬울 것이다. 또한 이들은 서비스 산업으로 대량 유입됨으로써 지역 서비스업의 영세화를 가속화시키거나 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노동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지역내 가용노동력의 공급을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잉여노동력의 제조업내의 업종간 혹은 산업부문간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추구하는 것이 지역노동정책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인 신산업의 유치는 일정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한 연구 및 기술직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노동력은 고등교육이나 인력개발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신규로 공급되든지 타 산업 및 업종에서 퇴출된 노동력이 이동함으로써 공급되든지 혹은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노동정책은 지역산업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신산업이 경험하게 될 생산요소 측면에서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중심인 기존의 부산지역 제조업의 구조 상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배출되는 노동력은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생산직 노동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노동력의 재개발이나 재교육을 통한 신산업에의 공급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교육이나 전문직업훈련기관의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 및 효과적인 운용을 통하여 신규노동력을 공급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인력의 양과 질의 확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력 집단으로서의 창의적인 기업가 집단이다. 그러므로 지역노동정책에서는 창의력을 갖춘 도전적인 젊은 기업가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성공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최근에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의 설립을 예로 들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역내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적인 기업가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조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산업구조 조정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지역 외로의 인재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역외 인재 유출을 차단하고 유출된 인재의 역내 U턴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기관과 장학기회의 확대 등을 포함한 교육적 환경과 적정한 취업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자기개발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안고있는 열악한 교육환경 및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있는 현 추세로 볼 때 향후 지역의 발전은 지역의 인적 자원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간 균형이란 단순히 산업의 지역간

균형배치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꾸려나갈 주체가 되는 인재의 지역 정착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지역노동력 공급의 원천이자 지역을 꾸려나가는 실질적인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지역 정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지역산업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지역산업구조의 조정은 지금도 필요하지만 경제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산업 경쟁력의 전환과 함께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노동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역산업구조의 조정을 원활하게 해 준다는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정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다. 산업구조조정과 노동력의 재배치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노동정책적 과제들 가운데 부산지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하며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과제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특정산업에서의 해직노동력의 발생과 그에 따른 노동력의 재배치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부산지역의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배출될 노동력은 대부분 생산직 노동력일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자발적인 직업탐색을 통한 재취업이 곤란한 저학력, 미숙련, 고령, 여성 노동력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볼 때 이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낮은 숙련도, 기술적인 다양성 부족, 정보의 부족, 연령 및 성적인 제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해직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직업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기업내 교육훈련으로서의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지역내 직업훈련기관에 의한 위탁교육(customized training), 장래에 발생할 특정 업종에서의 잠재적인 노동력 부족 상태를 대비한 기술훈련 등을 들 수 있다.<sup>4)</sup> 지방정부는 이러한 교육 훈련을 담당할 시립기술대학 등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의 운용은 민간이 지닌 노하우와 활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이 적당할 것이며 지역의 기업체 들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질과 량을 결정하여 교육기관에 의뢰하고 기관은 기업이 수요하는 노동력을 교육,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부여 등을 통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력의 재교육이나 기술훈련을 시킬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기업내 교육훈련이 활성화된다면 기업은 자체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인적 자원을 축적하고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성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해직노동자들에 대하여 구직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직업탐색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며 수요자와 공급자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장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민간기업과의 협조 하에 지역직업정보 센터나 직업알선센터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내 가용노동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도모한다.

셋째, 여성 및 고령의 노동력을 적절히 흡수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는 노동력의 공급부족 상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장래의 노동력 부족사태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교육을 통한 이동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외에도 장래 부산이 국제적인 해운항만도시 및 업무중심도시로 도약할 시점에 대비하여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잉여노동력을 관광, 컨벤션, 호텔 등에 관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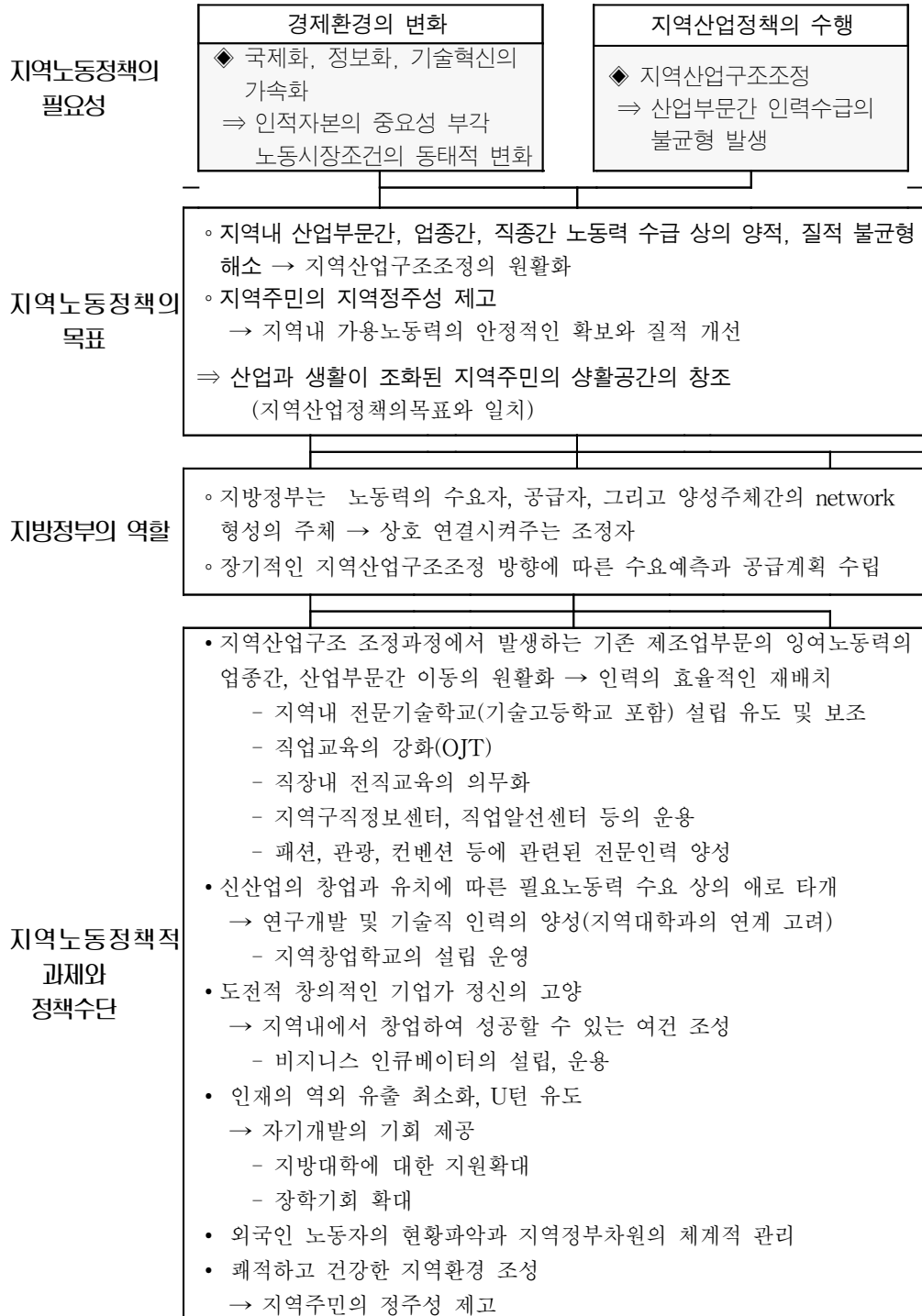
---

4) Blair, J.P., 1989, pp.233~234.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흡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점점 그 수가 늘어나게 될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지역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그림 5> 지역노동정책의 개념도





## 참고문헌

- 강광하, “산업구조조정과 산업정책”, 『경제논집』, 제34권 제1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4.
- 강찬·윤중걸, 『21세기를 향한 부산산업정책방향』,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1994. 5.
- 국토개발연구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보고서』, 제1권, 제2권, 제3권, 국토개발연구원, 1992(1).
- 김성중,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육성정책」, 『경남개발』, 1995. 5.
- 노성호, “국제화·지방화 시대 부산산업의 발전방향”, 『부산산업정책과 자동차 산업』,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부산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94. 10.
- 박남건 외, 『산업인력의 업종별, 직종별 수급전망과 향후 대책』, 산업연구원, 1990.
- 박남건 외, 『산업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1990.
- 박남건 외, 『산업인력의 수급구조분석과 향후 대책』, 산업연구원, 1991.
- 박준경·김정호,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12.
- 박희정, 『지역산업구조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2.
- 부산광역시,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발전 기본계획』, 1994. 12.
- 부산광역시, 『세계화를 향한 지역경제 육성시책』, 1995. 2.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시정경영진단』, 1996. 3.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권 기술상태 및 수요조사연구』, 1994. 8.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제조업체의 업종별 현장애로요인과 개선방안』, 1995. 3.
- 부산발전연구원 역, 清成忠男, 『지역산업정책』, 1995.
- 부은경영정보연구소, 『부산지역 정보산업실태 및 육성전략』, 1995. 11.
- 산업연구원 무역연구부 일본실 역, 伊藤元重 외 4인, 『산업정책의 경제분석』, 산업연구원, 1989. 5.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산업의 구조조정 및 진흥정책』, 1994.

- 송병준, 『인력수요구조변화와 산업인력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1992. 6.
- 어수봉, 『노동시장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이대근 외,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력(II)』, 한국경제연구원, 1991. 12.
- 이영준, “부산지역산업의 생산성분석과 지역정책”, 지역경제세미나,  
한국은행, 1992
- 임정덕, “한국의 지역간 두뇌유출에 관한 연구: 부산-서울의 두뇌유출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34집, 1986. 12.
- 임정덕, “지역산업정책 연구노트”, 『지역개발연구』, 제2호, 부산대학교 지역  
개발연구소, 1990.
- 임정덕, “산업구조재조정에 따른 부산지역 취업구조의 변화”, 『부산지역 중소  
기업 기능인력의 실상과 과제』, 동의대 중소기업대학원, 1991.
- 임정덕, “부산지역 산업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체제구축”, 부산지역경제와 중소  
기업발전전략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6. 5.
- 임정덕·이갑수·권기철, 『부산지역경제와 신산업정책방향』, 부산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1994. 11.
- 임정덕, 『지역경제분석』, 부산대 출판부, 1997.
- 임정덕·김완표,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 및 이동에 대한 연구』, 부산대 노동  
문제연구소, 1996. 3.
- 임정덕·최병호, 『지방화시대의 지역산업정책』, 비봉출판사, 1996. 10.
- 임정덕·장영재,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1996년도 한국경제  
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7. 2.
- 전명진, “부산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부산의 수출  
과 산업경쟁력 분석』, 부산광역시, 1995. 10.
- 정기룡 외, 『부산지역산업구조의 변화: 취업구조를 중심으로』, 동남은행 지역  
개발 연구실, 1993. 7.
- 정기룡 외, 『부산권 산업구조에 관한 연구』, 동남은행 지역개발연구실,  
1993. 11.
- 정인수, 『중소기업 인력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5. 3.

- Adam, S. and J. Zornitsky, *From One Job to the Next: Worker Adjustment in a Changing Labor Market*, W.E. Upjoh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1989.
- Barbour, G. P., et al., *Excellence in Local Government Management*, ICMA, 1984.
- Birch, D. L., *Job Creation in America*, Free Press, 1987.
- Blair, J. P., *Urban and Regional Economics*, Mcmillan, 1988.
- Fallick, B. C., "The Industrial Mobility of Displaced Worker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1, No. 2, April 1993.
- Lavitan, S. A., et al., *Human Resource and Labor Markets*, Happer & Low, 1972.
- Lim, Jung-Duk, "Urban Growth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for the Case of the City of Pusan," *Environment and Planning A*, 1991.
- Kitching, R., "Migration Behavior Among the Unemployed and Low-skilled," J. H. Johnson & J. Salt, *Labor Migration*, David Fulton Publisher, 1990.
- Marshall, F. R., V. M. Briggs, A. G. King, "Labor Economics," 5thed., Irwin, 1984.
- Mincer, J., "Investment in US Education and Training," NBER, No. 4844, 1994.
- OECD, *Territorial Developpeznt and Structural Change: A New Perspective on Adjustment and Reform*, Paris, 1993.
- OECD, Partnerships: "The Key to Job Creation," *Local Initiative for Employment Creation*, Paris, 1995.
- Osterman, P., "Skill, Training, and Work Organization in American Establishments," *Industrial Relations*, Vol. 34, No. 2, April 1995.
- Rifkin, Jeremy, *The End of Work*, 1995.
- Sable, C., *Work and Politics: The Devision of Labor in Indust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Storey, D. and S. Johnson, *Job Creation and Labor Market Change*, Macmillan, 1987.
- Wise, L. R., *Labor Market Policies and Employment Patterns in United States*, Westview Press, 1989.

<부표 1> 부산의 연령계층별 근로자의 구성

(단위 : 천명, %)

	총수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55세이상
1974	278 (100)	59 (21.2)	117 (42.1)		70 (25.2)	27 (9.7)	4 (1.4)	
1980	431 (100)	88 (20.4)	117 (27.1)	78 (18.1)	87 (20.2)	45 (10.4)	10 (2.3)	5 (1.2)
1985	532 (100)	70 (13.2)	124 (23.3)	111 (20.9)	128 (24.1)	73 (13.7)	18 (3.4)	7 (1.3)
1990	543 (100)	46 (8.5)	98 (18.0)	105 (19.3)	158 (29.1)	91 (16.8)	30 (5.5)	14 (2.6)
1995	477 (100)	11 (2.3)	62 (13.0)	79 (16.6)	144 (30.2)	105 (22.0)	42 (8.8)	34 (7.1)

자료 :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노동부

<부표 2> 경남의 연령계층별 근로자의 구성

(단위 : 천명,%)

	총수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55세이상
1974	140 (100)	37 (26.4)	57 (40.7)		34 (24.3)	10 (7.1)	2 (1.4)	
1980	296 (100)	43 (14.5)	77 (26.0)	64 (21.6)	75 (25.3)	30 (10.1)	5 (1.7)	2 (0.7)
1985	401 (100)	42 (10.5)	88 (21.9)	101 (25.2)	110 (27.4)	46 (11.5)	10 (2.5)	4 (1.0)
1990	512 (100)	24 (4.7)	89 (17.4)	118 (23.0)	175 (34.2)	80 (15.6)	20 (3.9)	7 (1.4)
1995	609 (100)	17 (2.8)	79 (13.0)	119 (19.5)	213 (35.0)	119 (19.5)	37 (6.1)	24 (3.9)

자료 :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노동부

<부표 3> 전국의 연령계층별 근로자의 구성

(단위 : 천명, %)

	총수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55세이상
1974	1,606 (100)	335 (20.9)	679 (42.3)		411 (25.6)	147 (9.2)	33 (2.1)	
1980	3,219 (100)	486 (15.1)	874 (27.2)	641 (19.9)	725 (22.5)	373 (11.6)	86 (2.7)	34 (1.1)
1985	4,107 (100)	399 (9.7)	951 (23.2)	953 (23.2)	1,049 (25.5)	563 (13.7)	138 (3.4)	53 (1.3)
1990	5,366 (100)	276 (5.1)	985 (18.4)	1,209 (22.5)	1,639 (30.5)	865 (16.1)	272 (5.1)	119 (2.2)
1995	6,168 (100)	170 (2.8)	876 (14.2)	1,248 (20.2)	1,958 (31.7)	1,140 (18.5)	423 (6.9)	352 (5.7)

자료 :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노동부

<부표 4> 부산유동인구의 전출입지역별 추이

<부표 5> 경남인구이동의 전출입 지역별 추이

<부표 6> 1995년 산업별·연령별 취업자수 <전국편>